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2년도 표어 ☉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벰전2:11-12)

☉ 행동지침 ☉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 마태복음 강해 ☉

예수님의 세례식 (마 3:13-17)

세례가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세례식은 구속사적인 신학의 관점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려는 예수님께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그 때 예수님은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루어야 했던 하나님의 의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그 순간에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를 받으시러 요단강으로 나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라는 세례 요한 외침은 참으로 놀랍고 적절한 표현입니다.

2. 공생애의 시작을 알림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마치 죄인이 되신 듯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께 중만하게 임하셨습니다(1-17절).

세례식은 예수님 삶의 획기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간 목수로 사시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 랍비로,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3. 하늘 문이 열린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16절).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고단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받았으나, 여전히 하늘 문은 열려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늘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셨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과 지혜로 이 절망의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사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모욕과 천대와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때로 이유없는 고난이 옵니다. 모욕과 멸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구원자로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거듭난 사람으로서 삶, 다시 말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면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답답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로 닫히지 않는 문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마음껏 받으시고 이웃과 함께 나누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The Baptism of Jesus (Matt. 3:13-17)

The baptism of Jesus appears in this text. The baptism of Jesus by John has a very significant meaning from a theological point of view in the mission of redemption.

1. For Achievement of God's Righteousness

John the Baptist told Jesus that he should be the one to be baptized. At that time, Jesus said, "Let it be so now; it is proper for us to do this to fulfill all righteousness." God's righteousness that had to be fulfilled by being baptized by a man is the mission of salvation.

The evangelical theologians say that at the moment when He was baptized, Jesus shouldered all of the sins of humanity. In this sense, by looking at Jesus Christ who was walking to the Jordan River coming to be baptized, John the Baptist cried out, "Behold! A young lamb of God who is going to shoulder all the sins of humanity." The expression of John's shouting, at that moment, was amazing and appropriate.

2. The Notification of Starting Public Life

When Jesus was baptized modestly like a sinner, and went up out of the water, heaven was opened. And He saw the Spirit of God descending like a dove and lightening on him (v. 1-17).

The baptism in Jesus' life was an epochal turning point. After Jesus who had lived as a carpenter was baptized, He began to live His life as a Rabbi, and a Savior.

3. Heaven is opened

"As soon as Jesus was baptized, He went up out of the water. At that moment heaven was opened, and He saw the Spirit of God descending like a dove and lightening on him" (v. 16).

Opening the heaven means that we experience God's throne and glory. Jesus lived a tough life on the earth. He was forced in all directions but the Bible says that heaven was always opened upon Him. By looking at the heaven, He prayed and He lived his victorious life with the power and wisdom coming from heaven in this hopeless world.

Conclusion

Jesus was only baptized to fulfill God's righteousness and to accomplish the mission of salvation.

For righteousness, He was insulted, dealt with contempt, and despised, and He even died on the cross.

We often meet hardship without any reason. We often are insulted, and contempt dealt to us. However, if we are willing to fulfill God's righteousness, we are able to fulfill the duties.

And just as Jesus lived as a savior after He was baptized, we must live our life as those who were bom again. In other words, we must live as a worker who gives evidence of the Gospel, and a saved spirit. Just as heaven was opened after Jesus was baptized, if we live to follow the way of Jesus, we can wonderfully experience an opened heaven. Even if we are closed all around and are in a hole, surrounded by walls, there is a door opened that no one can close. By receiving God's grace, love, and righteousness fully, I earnestly hope that you will live your blessed life and be able to share it with your neighbors.



“BRIDGE 2012 회복과 부흥”
-세대와 세대를 잇는 부흥-

2012년 흥해작전이 박노철 목사의 인도로 6월 6일(수)부터 25일(월)까지 새벽5시에 본당에서 열린다.

서울교회 흥해작전은 택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시고, 흥해를 열어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합심하여 조국의 안전과 복음화, 서울교회와 한국교회의 부흥, 가정과 개인의 기도제목을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흥해도 믿음으로 건너고자 하는 “말씀과 기도운동”이다.

이번 흥해작전의 주제는 “BRIDGE 2012 회복과 부흥”이며 - 세대와 세대를 잇는 부흥-이라는 부제로 제2대 박노철 목사 위임이후 첫 번째 맞는 흥해작전 특별새벽기도회로 말씀과 기도가 은혜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모든 성도들은 새벽을 깨우며 주님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이번 흥해작전 기도제목은 다음과 같다.

2012 흥해작전

“BRIDGE 2012 회복과 부흥”

-세대와 세대를 잇는 부흥-

6월 6일(수)~25일(월) 새벽5시 본당

흥해작전 기도제목

- 1) 우리 앞의 흥해를 갈라주신 주님!**
개인 가정과 교회와 민족 앞에 흥해를 갈라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 2)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하나님보다 세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와 민족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 3) 말씀과 기도 위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예배의 부흥과 다락방 사역을 통해 날마다 성장하는 일터와 복된 가정, 서울교회 되게 하옵소서.
- 4)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시는 주님!**
복음에 빛진 자로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증인되게 하시며,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서울교회 되게 하옵소서.
- 5)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을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과 육, 깨어진 관계와 가정, 일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온전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교회 안의 모든 세대가 전통과 갱신, 경륜과 열정으로 하나 되어 주님이 약속하신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 6)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신 주님!**
자녀들에게 믿음의 부요함과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어 훌륭한 선생님, 좋은 친구 만나게 하옵소서. 청년들에게 사명 감당할 직장과 믿음의 배우자 허락하시고, 복된 자녀를 낳아 신앙으로 잘 양육하여 믿음의 가문을 대대에 세우게 하옵소서.
- 7)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복음화 된 통일 조국이 속히 오게 하시고, 의와 평강의 나라,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나라가 되어, 죄에 물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구원의 다리 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믿음으로 흥해를 건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대 장로 5명, 12대 집사 45명, 11대 권사 61명 피택

-5월13일(주) 공동의회에서-

지난주일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열린 항존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11대 장로 5명, 12대 집사 45명, 11대 권사 61명이 각각 피택되었다.(명단은 본지 5, 6면 참조)

또한 집사와 권사로 피택된 이들을 위한 당회주관

교육이 19일(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계속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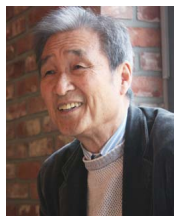
이번에 피택된 모든 이들이 교육과 훈련과정을 통해 주님의 귀한 종이 되도록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기 바란다.

한마음 한가족 잔치 은혜중에 진행 중

교구별 한마음 한가족 잔치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다.

금주는 6교구로 26일(토) 영종도에서 행사를 가진다. 또한 다음 주는 5교구가 28일(월) 과천공원에서, 11교구가 6월 2일(토) 미사리 경정공원에서 갖는다. 소속 교구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금요 기도회, 특강



주수일 장로
(사진 출처:
크리스천 투데이)

5월 25일 금요기도회에 주수일 장로를 모시고 특강을 한다.

- 세계 부부의 날 위원회가 선정한 '2011년 올해의 부부상' 수상자
- 진새골 사랑의집 원장
- 1000회의 부부세미나 인도
-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부상담 가정사역자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49]

(문 44) 레위기 16장의 남의 죄를 대신 지고 광야에 보낸 짐승(Scapegoat)는 누구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답) : 레위기 16장은 해마다 7월10일에 거행된 대 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날에 두 마리의 염소가 제공되는데 그 하나는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리고 다른 하나는 산 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세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게 한 것입니다.

이 염소는 아세셀을 위하여(10)라고 한 말씀이 난해 구절입니다. 아세셀은 떠나보냄이란 뜻으로 그 해석이 다양합니다. 속죄제로 바쳐진 한 마리의 염소는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했듯이 다른 한 마리의 염소는 아세셀을 위하여 했으니 이는 광야에 거하는 악령 또는 사단이라 읽는 이가 있는가 하면 광야의 한 지역 명 또는 광야로 보낸 염소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같은 해석에 의하면 아세셀로 보내는 염소머리에 죄악을 실어 보내는 것은 모든 죄악을 마귀에게 보낸다는 뜻이 있으나 자연스러운 해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세셀을 위한 염소를 속죄물로 드린다는 것은 그 속죄 받을 사람의 받을 뿐 한 저주와 죄악이 멀리 옮겨간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옳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두 마리 염소 중 하나는 죽어 속죄 제물이 되었고 다른 하나는 살아 광야로 갔으나 그 목적은 다 같이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서 언급한 희생제물은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예표한 것입니다. 저주받은 죄인을 위해 속죄양으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이 속죄 제물로 바쳐진 염소로 상징된 것입니다. 광야로 보내진 염소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죄가 옮겨간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주 계속)

8층 식당 왁스 청소

5/21(월)-22(화) 양일간 사무국에서 교회8층 식당 왁스 청소를 실시한다.

5/21(월)-22(화) 양일간 실시되는 이번 청소를 위해 오늘 오후 3시30분부터 식당테이블 밑 의자를 정리한다. 남자 성도님들의 많은 도움 바란다.

한국장로교표준주석 출간 감사예배

한국장로교표준주석 첫 출간

- 갈라디아서와 민수기를 첫 열매로 -



한국장로교표준주석으로 갈라디아서와 민수기 표준주석이 출간되면서 지난 1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창립 100주년 기념 '한국장로교표준주석출간' 감사예배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드렸다.

한국장로교총회는 통합 교단의 신학이념에 따라 개혁교회 전통의 복음주의 신학사상이 주류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서서 목회의 일선에 있는 목회자와 신학생들에게 쉽게 이해되어지는 주석서를 발간하기로 한 것이다.

표준주석은 이미 1934년 회년에 즈음하여 성경전서 주석 간행을 결의, 1937년부터 간행되기 시작했으나 시대적 상황 변화와 교회 분열등의 문제로 두 차례나 중단되었고,

2005년 90회기 총회가 교단 신학의 정체성 확립과 신학적 표준을 제시할 총회 표준주석 출간을 다시 결의, 편집위원을 구성하여 편찬을 다시 시작하였다.

그러나 2006년 이또한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이에 서울교회에서 3억원을 지원하므로 출간작업이 재개되어 7년만에 빛을 보게 되었다.

48명의 신학자가 집필한 이번 표준주석은 성경 66권 중 구약의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민수기와 신약에서 가장 먼저 씌어진 갈라디아서를 시작으로 올해 완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감사예배의 설교를 맡은 박위근 목사님(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은 "어떤 주석은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해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하는 큰 오류에 빠지게 하며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엄청난 비극이 찾아온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른 해석이 필요하다"며 "총회가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이미 많은 주석이 있지만, 모든 주석 중 표준으로 교회의 강단을 말씀으로 지켜내기를 바라며 총회의 이름을 걸고 표준 주석을 발간하게 된 것이다. 설교자가 성경에 기초한 것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한국교회 강단이 바로 세워질 것이며 이에 이번 표준 주석이 크게 기여해 성경의 바른 이해

와 해석을 심층적으로 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번 표준주석 발간을 진두지휘한 이종윤 목사님은 "한국에 많은 주석들이 있지만 성도들이 표준으로 삼을 만한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 이번 표준주석 발간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총회표준주석에서 장로교표준주석으로 이름을 바꾼 것에 대해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해 씌어진 이번 표준주석은 교단을 넘어 한국장로교 전체를 대표하는 장로교표준주석으로 개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장로교표준주석의 판매 수익금은 표준주석 영문판을 발간하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한다.

장로교표준주석이 오고 오는 세대에 한국 장로교의 벽을 넘어 한국교회의 모든 강단과 신학도들과 평신도에게까지 흘러가 이 땅이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한다.

**출간된 민수기와 갈라디아서 구입 방법은 추후 순례자에 게재된다.



갈라디아서를 총회장에게 헌정하는 이종윤 원로목사

허숙 권사 (편집부)

한가족 한마음 잔치를 마치고

여기에 모인 우리

주동재집사(13교구)

"하나님, 저희 13교구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13교구는 아직 코끝이 매운 2월부터 등록 가구 348가정이 함께 하는 한마음 한가족 잔치를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교구임원 모임으로 함께 했습니다. 4월 27일 교회 8층, 손에 손에 든 옷, 책, 그릇, 신발 등의 물건들이 5개조로 나뉜 테이블에 차곡차곡 진열되고, 김밥, 떡볶이, 샌드위치, 부침개, 어묵 등 맛있는 먹거리들의 고소한 냄새로 채워집니다. 음식은 금방 동이 나고, 서로서로 옷들을 골라 주고 원하는 소리들로 흥겨운 장터가 연출되었습니다. 한 마음 한가족 잔치 기금 모금을 위해 열린 교구 바자회는 2시간 여만에 1백2십3만원의 수익으로 하나된 우리들의 정성이 모였습니다.

드디어 5월 12일 토요일,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씨, 속속 모인 가벼운 차림의 교구 가족들이 석 대의 대형버스에 분승해 하나님 주신 동산 아가페 타운으로 향했습니다. 갖가지 꽃들과 신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어린이가 되어 맘껏 웃고 엔돌핀을 발산했습니다. 초등학교 소풍으로 돌아간 듯한 야외 보물찾기에선 여기저기서 즐거운 탄성이 울렸습니다.

장로님으로부터,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에 이르기까지 정성어린 후원으로 모인 기금과 교회 지원금은 아끼고 절약하여 풍성히 쓰고, 우물파기 기금으로 헌금하도록 뜻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한마음 한가족 잔치로 하나된 우리 교구가족들, 더 큰 사랑으로 주님에게 쓰임 받기를, 서로를 더욱 사랑하기를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기를 다짐해봅니다.



백발은 영화의 변류관이라



소망부, 아브라함, 사라, 샬롬, 은빛천양대 춘계 연합 야외예배

한가족 한마음 잔치를 준비하며

이 좋은 계절에



**김승택 집사
(5교구 간사)**

서울교회 5교구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

신지 문안드립니다. 좋은 계절과 가정의 달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좋은 날에 저희 5교구 한가족 한마음 잔치를 가집니다.

교구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두 모여 하나님이 주신 계절과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구장 최학인 장로님을 비롯하여 부교구장 임선철 집사님, 그리고 저희 간사들이 매 주일마다 열심히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과천경마공원으로 5교

구 모든 지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며 연세 많은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오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넓은 주차장과 잔디마당, 야생화정원, 놀이터 등 쾌적한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5교구에 속한 어린이로부터 연세 많은 분까지 교구가족 모두를 초청하오니, 오셔서 정성으로 준비한 점심식사와 레크레이션 활동으로 마음껏 교제하며 어울리시기를 기대합니다. 오실 때는 카풀을 많이 이용해서 함께 오시고, 지하철로 경마공원역 3번 출구 앞에서 간사에게 전화주시면 연세 많은 분은 차로 모시러 갈 예정입니다. 5월 28일 월요일(공휴일)에 교구 가족 모두가 밝은 모습으로 인사하고, 마음껏 교제하는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일 시 : 5월 28일 월(공휴일) 오전 10:00~오후 03:00
- 장 소 : 과천 경마공원 (4호선 경마공원역)

한국기독교학술원 제 41회 학술세미나

한국기독교학술원(원장 이종윤 목사)은 오는 5월 21일(월) 오후 2시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한국교회의 공적책임 - 공동선과 공동진리라는 주제로 제41회 학술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열리는 학술세미나에는 교회와 사회에서의 '공동선(The Common Good)을 어떻게 실천할까?'라는 주제로 송용원 박사(연세대졸, 에딘버러대 Ph. D.)가 발제를 하며, 박경수 박사(서울대졸, 클레어몬트대 Ph. D.)가 논찬을, '공적진리(The Public Truth)의 입장에서 본 한국교회의 공적책임'에 대해 류대선 박사(서울대졸, 장신대 Th. D.)가 발제를 하며, 김재진 박사(연세대졸, 문스터대 Dr. theol.)가 논찬에 나선다.

목회자세미나 학사보고

현대 목회와 치유상담

2012년 3월 5일(월)부터 5월 7일(월)까지 10주간 동안, “현대 목회와 치유상담”을 주제로 열린 제41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를, 은혜 중에 마치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학기는 1교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허주 교수님의 “사도행전 강해”로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고, 제 2교시- 열 분 강사님들의 주제별 강의를 통하여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알게 되어, 모든 한국교회가 갱신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울교회 부설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목회자 신학세미나는, 1992년 3월 강좌를 개설한 이래 교파를 초월하여, 전국의 목회자들에게, 지속적인 말씀공부와, 신학적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명의식을 고취시키고, 지도력을 개발하게 하는 등 한국교회의 목회 방향을 새롭게 조명하고, 학기제 세미나를 정착시키며, 금번 41학기에 이르기까지 총 수강생의 연인원이 31,095여 명이며 그 중 4학기 이상을 이수한 수료자만도 2,459명에 이르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세미나를 수강한 수강 인원은, 매주 평균 300 여 명씩 총 3,095명이며, 이 중 14명이 4학기를 이수하여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에 사도행전 강해를 은혜롭게 전해주시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허주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맡으신 강의를 충실하게 해주신 모든 강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월요일마다 주일 이후 육신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동서남북 원근각처에서 참석하셔서 세미나를 더욱 열기로 가득 차게 하고 열심히 수강을 해주신 모든 교역자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하신 권사님과 집사님들, 생업을 일시 중단하고 온종일 보이게 보이지 않게 충성을 다해 열심히 봉사를 해주신 서울교회 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에 학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12. 05. 07

韓國教會 更新研究院

목회자세미나를 마치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목회자

채형기 목사

만물이 소생하고 회복하는 때에 먼저 이러한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서울교회에도 감사드립니다. 크든 작든 한 과정을 시작하고 마치는 일은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독교 문화진흥원과 한국교회갱신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목회자 신학 세미나는 실천 목회에 유익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 해주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요 저술가이기도 하신 이종윤 목사님, 말씀의 중요성을 전달하시는 박노철 목사님, 조직 신학과 성서 신학을 균형있게 강의 해주신 성경 강해 교수님, 시대에 맞게 리더쉽, 교회사, 교육, 상담과 치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매가 있고 역사적 배경, 선교 내용이 있었습니

다. 등록과에서 늘 밝게 대해주시는 권사님, 집사님, 따뜻한 울무차, 생강차, 커피로 섬겨 주시는 분, 제철 과일과 정성스런 식사로 식당에서 준비하시는 분, 기도와 찬양으로, 또는 안내와 행정으로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한마음으로 섬기시는 모습에서 천국시민의 모습을 보는 듯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가까이 올 때는 오아시스에 가까이 온 것과는 같았습니다.

귀한 목사님과의 교제도 감사하며 저 역시 총복에서 오가면서 전도도 할 수 있게 된 기회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회자가 다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푸르른 오월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서울교회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축복합니다.



2012년 항존직 피택자 명단

피택장로



1. 최양진 2. 최광성 3. 양춘경 4. 이계홍 5. 이강진

피택집사



1. 이지동 2. 김희동 3. 이민호 4. 이태승 5. 서은석 6. 정철웅1 7. 박덕호 8. 김규환 9. 송용훈
 10. 정승주 11. 임우택 12. 김기욱1 13. 권성열 14. 노창준 15. 장상국 16. 최재식 17. 손종근 18. 정원진
 19. 정용문 20. 김주년 21. 고석태 22. 이기일 23. 이상호2 24. 최명남 25. 장윤기 26. 최관록 27. 이선표
 28. 김은석 29. 권재현 30. 오세복 31. 김영화 32. 김두일 33. 한상욱 34. 한상혁 35. 박상운 36. 송광호1
 37. 이덕진 38. 임종태 39. 조상환 40. 최승환1 41. 박경준 42. 최영혁 43. 이경수 44. 김규성 45. 이겸순

피택권사



1. 송미령1 2. 김미성1 3. 김동진 4. 박 옥 5. 진교숙 6. 장기숙 7. 강창숙 8. 장호림 9. 이건희
 10. 윤금자 11. 김순영 12. 윤용미 13. 현승희 14. 김경진1 15. 박혜선1 16. 김혜란 17. 이혜선 18. 이인숙4
 19. 이연주 20. 홍건표 21. 조미환 22. 제오복 23. 이명신 24. 박궁순 25. 임인선 26. 임영숙 27. 안미경



미안파 선교사 추가 파송

교회는 4월부터 미안파에 Mrs. Ngiang Hi 전도사와 Mr. Samuel Kei Sum 전도사를 추가 파송 하기로 하였다. 현재 수도 양곤에 있는 가정 교회를 각각 섬기고 있으며, 우리교회 파송 미안파 현지인 선교사는 7명이 되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이종길, 홍미영 선교사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4월30일 자로 사임하였다.

**5월 성경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필사 : (12교구) 윤갑숙 권사
- 6독 : (6교구) 이운영 권사
- 1독 : (8교구) 한상준 집사 (13교구) 주동재 집사 (3교구) 송성태 집사 (6교구) 하정자 권사 (14교구) 강창숙 집사 (9교구) 이남성 집사

**호산나대학 서민규, 2012 충주 탄금호배 장애인 조정대회 1위
2013년 조정 세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



수상한 호산나대학 교양학부 1학년 서민규 학생(중앙)

지난 5월 7일(월) ~ 5월8일(화) 2012년 충주 탄금호배 장애인 조정대회에서 호산나대학 교양학부1학년 서민규 학생이 경기도 대표로 LTA-ID(지적장애부)에 출전, 개인전 1위, 단체전 3위 입상하여 2013년도 충주 조정 세계선수권 대회 국가대표로 선발 되었다. 서민규 학생은 경기도 대표로 꾸준히 각종 조정대회에 출전해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으며, 본 대학과 한국체대에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최상의 실력과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이번 대회에서 우승, 국가 대표로 선발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5월20일(주) 산정현교회 주일1,2부예배 설교를 한다. 21일(월)한국기독교학술원 제41회 공개학술발표회를 갖는다. 23일(수) 부산 고신대 채플과 특강을 한다. 26일(토) 명저번역위원회를 소집한다.
- 득남: 5교구 이범우 성도 강민정 성도 12교구 하인구 성도 김선영 성도 12교구 오유록 성도 이주현 성도
- 득녀: 6교구 배기돈 집사, 김금선 집사 12교구 노재균 전도사 김진희 성도
- 주간 식당 봉사: 제1권사회(5.20) 제2권사회(5.27)
- 금주의 식사: 교회제공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주일 3부예배(청년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임마누엘찬양대(부장/김영준장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류충기집사의 지휘로 “진리(백하슬기 작곡)”, “축복 더한 축복(Vicki Tucker Courtney 작곡)”, “축복 더한 축복(Vicki Tucker Courtney 작곡)” 등 합창 세곡과 박세아, 조성아 대원의 소프라노 이종창 “나 주를 바라니(Felix Mendelssohn 곡 [찬양의 송가미]” 등 네곡을 찬양하며 오르가니스트 최수황집사, 피아니스트 양경실집사 그리고 팀파니스트 윤중현성도가 함께 연주한다.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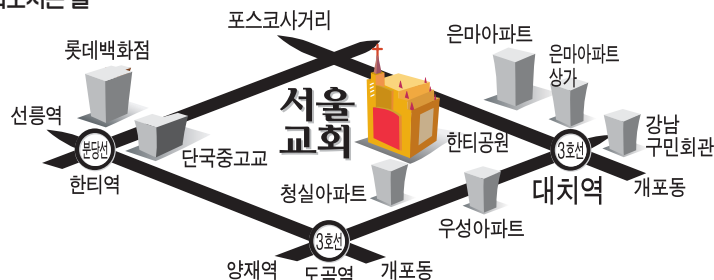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새롭게 피택 받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인수집사님들이 훈련을 잘 받아 더욱 든든한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2. 한국장로교 표준주석 출간 사역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되도록
3. 한 마음 한 가족 잔치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며 교구가 하나되고 다락방 사역이 힘을 얻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